

교회소식

-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혼두라스 단기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고 도우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교팀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난 주 공동의회에서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영순 권사님이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 장로 투표 공동의회
 - 3월10일(주일) 예배 후 본당
 - 후보자: 김동수, 서영수
 - 선출이 확정되면 장로임직식을 3월31일(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2월 안내: 신미라 권사 / **3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노미라 집사 (시 99)
이번 주 친교: 이미경 집사, 이영미 집사
다음 주 친교: 한주루 권사, 전영자 권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3월개강)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060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Mission Testimony / Prayer Time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Still”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1장(통21장) “다 찬양하여라” ----- 다함께
 Hymn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대표기도 ----- 시편 37:1-11, 39-40 ----- 구자금 목사
 Prayer Psalm 37:1-11, 39-40
 찬양 ----- “주께 더 가까이”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요 1:4-14; 3:16** ----- 인도자
 Word of God John 1:4-14; 3:16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선교보고 ----- 선교팀
 설교 -----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497장(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 다함께
 Hymn I Love to Tell the Story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말씀

어둠 속에 들린 말씀 이사야 6:1-13

어둠속에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고 소명을 받는 장면은 특히 “입”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앞의 두려움이나, 구속과 소명 모두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을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많은 말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소용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것도, 듣지 않아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사는 것입니다(겔 33:11).

듣지 않는 이유는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좋아라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백성들의 병을 쉽게 고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 아니 들을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듣자니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귀를 막고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듣자니 두렵고 안듣는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라서 듣는 귀에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심장을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말로 사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직한 자기 신념보다는 남들이 많이 들어줄 말을 합니다. 대놓고 거짓말은 안해도 “조금씩” 과장합니다. 그 “조금씩”으로 인해 남이 많이 듣기도 하고, 자기도 조금 잘보이기도 하지만 그 “조금씩”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든 안듣든 있는 그대로, 자기 소원대로 말하십니다. 그 소원은 듣고 보고 돌이켜 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하십니다. “말 못할” 존재들이라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자기를 희생해 우리를 살리는 소원을 이루십니다.

세상 풍문이야 듣든 말든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는데 순종치 않으면 듣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권위있는 명령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듣지 못해 행하지 못한 사람보다 죄값이 큼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었다 할 일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함부로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을 듣지 않은 죄값을 자기가 치르십니다. 숲의 나무가 모두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예수께서도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듣든 안듣든 소원대로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이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 들을만한 상태도 아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게 우리 실력입니다. 은혜 받을까 겁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일어날 일을 어렵듯이 알기에 두려워 적당히 숨으려 합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들린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 음성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지만 듣고 순종해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우리 짐작과 판단과 욕심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기 원합니다.